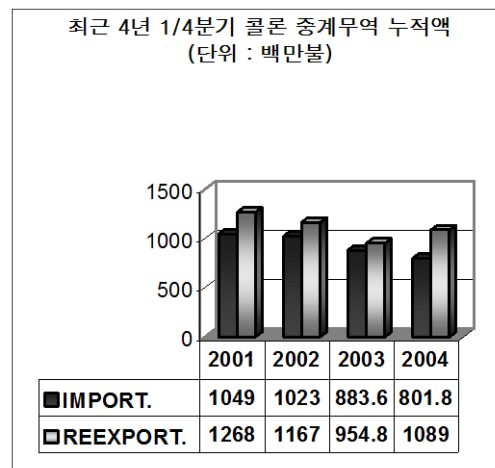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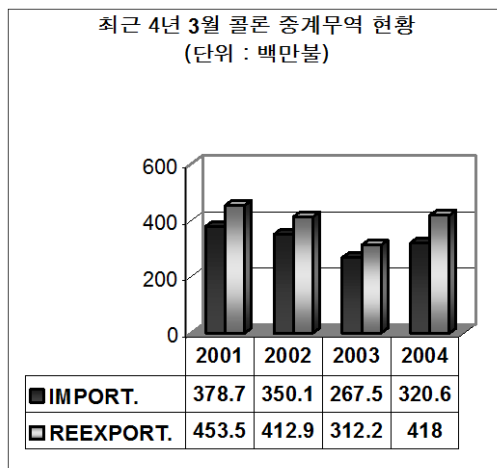


■ 밝아지는 對파나마 수출전망

- 내수, 콜론 모두 경기 회복

-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(CEPAL)는 금년 파나마 경제성장률이 4%에 무난히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음. 국제경제가 회복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파나마의 경제도 연중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음. 이에 따라 파나마의 경제성장률은 중미에서는 코스타리카 4.4% 다음으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임. 파나마 정부는 금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6.8%에 이르렀음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.
- 특히 최근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중계무역이 활기를 되찾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. 사실 베네수엘라, 콜롬비아 등의 국내 정세 불안으로 2002년, 2003년은 콜론 중계무역업계에 최악의 시기였는데 2003년 말을 기점으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.
- 콜론자유무역지역 당국에 의하면 금년 3월 한 달 콜론의 수입은 3억2천6십만불로 2003년 동월 대비 19.9% 증가했고 재수출은 4억1천8백만불로 2003년 동월 대비 33.9% 늘어났음. 한편 1/4분기 전체의 수입 누적액은 8억1백8십만불로 2003년 동기 대비 9.3% 감소했으나 재수출은 1십억8천9백4십만불로 14.1% 증가해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.



- 한편 2003년 미국-중미5개국(코스타리카,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) 자유무역협정(CAFTA)가 체결되어 중미의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는 것도 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음.
-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는 중미의 경우 코스타리카 경제성장률은 2003년 5.6%에 이어 금년에는 조금 저조한 4.4%에 머물겠지만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니카라과 등은 좋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음. 이 중 니카라과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2.3%에 이어 올 3.7%에 이를 것으로 보임.

- 이러한 중미 전체 경제의 활기는 무엇보다도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그에 따라 중미의 對美 수출산업 여건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 중미 수출의 60%는 對美 수출이고 중미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50%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호황, 불황은 중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. 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중미인, 즉 흔히 얘기하는 히스패닉 인구의 본국 송금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 미주개발은행(IDB)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가 중남미에 있는 가족, 친지에 보낸 금액은 3백8십억불에 달하며 이들의 송금수수료가 평균 8%로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.
- 금년 세계 상품교역 규모가 2003년 대비 7%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미의 수출입도 크게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임. 한편 우리나라의 금년 1/4분기 對파나마 수출은 2억7천7백만불로 2003년 동기 대비 20% 감소했으나 앞으로 파나마 경제성장세 및 콜론 중계무역 경기 회복으로 2003년 대비 수출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(문의처 : 파나마무역관 박강욱 juancarlpa@kotra.or.kr)